

국제유가, 75달러까지 간다!

사우디 석유장관 예측 ... 시장수요 약한 것이 문제점

사우디의 알리 알-나이미 석유장관은 국제유가가 궁극적으로 배럴당 75달러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 8개국과 15개 신흥 및 산유국 에너지장관 회담차 로마에 온 알-나이미는 회담 전날인 5월2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가 궁극적으로 75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시장 수요가 약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외부 수요가 특히 문제시되고 있어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C은 5월28일 회동을 앞두고 있다.

리비아의 쇼크리 가넴 석유장관도 국제유가가 75달러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시장 펀더멘털 때문이 아닌 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OPEC은 5월28일 회동에서 석유 생산량을 유지하는 대신 쿼터를 엄격히 이행하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마 회동에는 G8, 산유국과 함께 중국, 브라질, 한국 및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들도 참석했다.

국제유가는 2008년 7월 147.5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2월 32.40달러로 폭락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현재 6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5>